

‘그림책 화가’ 37명의 삶과 예술세계



어린이서점 '동화나라' 주인공 정병규씨 '우리 그림책...' 책 펴내

원로 작가부터 젊은 작가까지

한 길 걸어온 이들의 이야기 묶어

“그림 작가들을 찾아 만나고 얘기 듣고 기록하면서, 이미 돌아가셔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자료를 찾고 가족들을 만났지만, 그분들의 삶 전체를 안다는 것은 어렵없는 일이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본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림책 작가들의 그림과 작업 세계를 알아 가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걸음을 댄 놓을 수 있었다.”(본문 중에서)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계기로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

오늘의 그림책은 어린이라는 한정된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문학 장르로 자리잡았다. 전반적인 출판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은 활력과 희망을 주는 분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작품의 그림책은 어른이 모두 보는 장르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와 기법, 주제를 갖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다른 말과 글을 쓰는 이들도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는 장르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별로 없다. 소설이나 시를 쓰는 유명한 작가와 시인은 알아도 그림책 작가들을 알고 있는 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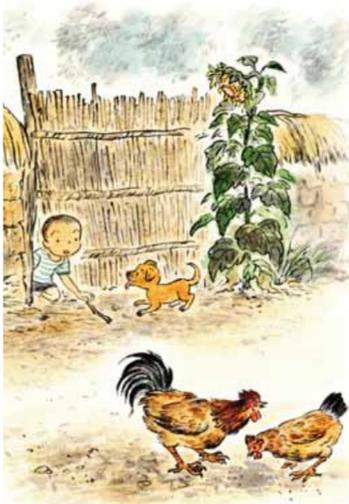
어린이서점 광주에서 살았으며, 어린이 서점 '동화나라' 주인공이자 작가인 정병규(사진) 씨가 '우리 그림책 작가들(보리)'을 펴냈다.

'작업실에서 만난 작가 37명의 그림책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원로 작가부터 꽃을 활짝 피운 젊은 작가들까지 한길을 걸어온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작가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개똥이네 집'에 연재했던 글들을 엮었다고 한다.



“그저 그림만 잘 그리는 화가였다면 우리는 그 이들을 갤러리나 미술관에만 만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것은 값비싼 회화 미술품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우리는 이 그림책 한 권에서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의 귀중한 장면을 찾아낼 수 있다.”

저자가 책을 발간하게 된 이유다. 그는 어린 시절



김중도의 '내 색시는 누구일까', 보리, 2013

아버지를 따라 미심쩍음에 따라가면서 거리에 즐비한 가게들을 구경한다. 변화한 거리를 지나며 신기한 물건들뿐 아니라 간판을 보며 상상의 나라를 했다. 자전거와 리어카에 잔뜩 짐을 싣고 가는 이들의 풍경은 자연스럽게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웠다.

책은 1장 '뿌리를 내린 사람들', 2장 '튼튼한 줄기를 세우다', 3장 '우리 그림책 활짝 꽃을 피우다'로 구성돼 있다.

1장에는 예전에 삽화시대라고 무시했던 시대를 다룬다. 자칫 묻혀버릴 뻔 했던 원로 그림 작가들의 삶과 그림책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고향을 그리며 고독한 새' 홍영우, '작은 종이 에 담은 큰 세상' 김광배, '천의 얼굴, 치열한 작가 정신' 김복태, '그림과 어린이를 사랑한 예술가' 정현웅, '40년 홀로 걸은 그림 인생' 전성보, '살아있는 선의 화가' 이우범 등의 삶과 예술이 담겨 있다.

2장에는 그림책의 허리가 돼주고 기둥을 세웠던 이들의 삶과 예술이 수록돼 있다. '그림을 사랑하는 그림쟁이' 권윤덕, '고목나무 같은 사람' 이억배, '흙이 좋은 이야기꾼' 조해란, '세상과 자연이라는 큰 그림' 강우근 등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오늘의 그림책 꽃을 피운 작가들을 소개한다. '번지 않는 마음을 지닌 이' 장순일, '자연은 그리는 생태화가' 이태수, '그림과 놀게 해주는 그림책' 권문희, '사람을 웃게 만드는 힘' 이영경,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림' 김병하, '떠난 뒤 더 빛나는 사람' 장호 등의 예술과 삶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작가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시큰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도 "정말 눈물 나도록 나를 웃긴 작가가 있다"고 했다.

책일 읽고 나면 작가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은 알게 된다. 뛰어난 그림 솜씨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림책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이 향상화했던 작품 세계 또한 친숙하게 다가오는 걸 느낀다.

한편 이주영 어린이문화재단 대표는 "그림책은 세대와 언어와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을 창조하는 일"이라며 "이 책은 그 일에 자기 삶을 다했던 사람들, 자기 열정을 다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디어아트 '경계'전...25일~5월 26일 미디어 338

삶과 죽음의 경계는 무엇이며 어디일까? 경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미디어 기획 전시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플랫폼 6개 특화공간 중 하나인 미디어 338에서 '경계(boundary)'전을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신도원, 펑크파마 작가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작품 외에도 퍼포먼스와 영상, 사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볼 수 있다.

'경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문하는 작품이다. 펑크파마와 신도원 작가가 함께 제작했다. '경계2'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경계의 의미를 풀어낸 신도원 작가의 작품으로 빠른 영상의 전개와 사운드로 죽음과 공포를 극대화했다.

신도원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감독을 맡았으며, 개인전 10회, 단체전 60여회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5일 미디어338 전시에 맞춰 예술의 거리에 미디어아트 STUDIO를 오픈한다. 펑크파마 작가는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로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부터 2017년까지 몸과 미디어아트의 접목, 물성의 재배치와 매체의 접목을 탐색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왔다. 문의 062-670-749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경계 1'

빛소리오페라단 창작오페라 '학동엄마' 공연

28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이 창작오페라 '학동엄마'를 선보인다. 28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

'학동엄마'는 광주시 동구 학동의 지역적 이야기를 소재로 평범한 여성이 9남매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훌륭한 사회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여성상을 재조명한 오페라다.

극심한 시집살이, 전쟁과 가난, 남편의 배신으로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자녀들을 키운 한 여성의 헌신과 1950~1990년 근

대사를 보여주고, 현모양처의 삶을 통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조명한다.

이번 오페라에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협연 및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성악가 등 100여 명이 참가한다.

총감독은 광주대 교수인 최덕식 빛소리오페라 단 단장이, 작곡은 한국창작작곡가협회 허길재 회장, 대본 및 연출은 박미애 광주대 교수가 맡았다.

이밖에 윤희정, 장호영, 장희경, 박정희, 박정연, 김용덕, 김지숙, 천현주, 장희경, 이유정, 장오영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은 전석 2만 원, 문의 062-227-744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예술·철학 인사 초청... ACC 인문강좌

오늘 최봉영 박사 첫 강좌

다음달 30일 김갑수 평론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문화, 예술, 철학 등 다분야의 인사를 초청, ACC 아카데미 상반기 인문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ACC 문화정보원 내 극장 3에서 진행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열린다.

첫 시작은 25일, 최봉영 박사의 '한국 사람에게 행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 사람이 나날이 배우고 쓰는 낱말의 뜻을 바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5월 인문강좌는 TV 조선의 '강적들'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활동해 온 김갑수(사진) 문화평론가의 '프랑스처럼 살고 싶다'다.(5월30일) 이번 강의에서는 세계문화의 유희성과 우리의 특별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예정이다. 6월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개폐식 의상을 연출했던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학과 김기숙 교수가 함께한다.(6월27일) 자세한 내용과 참여신청은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06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새마을을 위한 행사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